

선교 기도 편지
“ 죽으면 죽으리라! ”
“ 이 산지를 내게주소서.”

#105 Mar./30/2012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확실한 삶의 목적과 방향, 또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는 나의 삶에 목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이기며 살수 있게 하시고,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의 삶, 내가 아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텅으로 사는 삶이므로 겸손하게, 그가 동행해 주심으로 마음의 평강을 갖게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부활 주일을 통하여 행하신 그의 아름다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1)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나 교회를 찾지 못한 일리향이 부활 주일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속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할아버지도 연약한 신자들이며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할머니가 90세가 넘으신 분이신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속히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급해지고, 시간은 부족하여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부활주 한 주 동안에 저는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경험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만난 대학생들에게 길을 묻게 되었는데 그들이 친절하게도 제가 가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역사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배웠으나 그가 생명의 주인이 되고 참 길이 뒀은 처음 듣는다면 열심히 들었습니다. 부활절이 가까웠으니 꼭 교회에 가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홍후, 다 리 엔, 그리고 준입니다. 또한 시아오 민이라는 여자분에게도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시아오 민은 부활주일에 교회에는 가지 못하였으나 꼭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엄청나게 먼 곳이라 자주 찾아 갈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련은 대학을 마치고 지금은 일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많은 업무량과 약한 몸 때문에 몸시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독한 감기로 몸이 더 약해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실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이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련은 여러분의 기도와 보내주신 헌금으로 공부를 마쳤으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는 또한 신학공부를 하여 이 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기를 바라는 소망도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련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 지난 번에 말씀드린 진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였고 지금 LA 지역에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잘 감당하여 중국을 위해서 잘 준비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며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의 은혜를 더욱 더 체험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은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 중국의 부모님들이 (특히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기를 바라는 부모들)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의 부모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곳에서는 선택할 여지가 없기에 더 고민들을 하며 우왕 좌왕 하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명의 부모들도 이 문제로 이민을 생각하거나 어린 자녀들을 혼자 외국으로 보내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국에 기독교 신자들이 많다고 하나 아직 어린 신앙인들이 대부분이라 많은 실수들을 하며 또한 신앙과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인격문제로 성도들이 상처를 심하게 받는 경우가 자자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 6명의 고아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안전 문제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7) 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으며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몇 달 전에 저는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2년을 더 이곳에서 지낼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선교사 브리스길라 드립니다.